

순천시, 동천하구 농경지 매입... 습지 복원 본격화

105억 들여 농경지 15ha 매입
영농활동으로 생태 오염 가속
습지 분연 기능 상실 예방 목표
수질개선 흑두루미 서식지 확대



순천시가 국비 105억원을 들여 동천하구 습지 내 농경지를 매입해 습지를 복원한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가 올해 국내 최대 농경지를 매입해 습지 복원을 본격화 한다. 국비 105억원을 투입해 동천하구 습지 내 농경지 15ha를 매입해 수질개선과 시조이자 천연기념물 흑두루미 서식지 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다.

2일 순천시에 따르면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내 농경지를 습지로 복원하기 위해 지난 6월 토지매입 및 등기 절차를 완료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회 국비 증액 사

업으로 확보한 국내 최대 규모의 습지 토지매입비로 추진됐다.

순천 동천하구는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어 있어 국제적으로 생태학적 중요성을 인정받은 습지다. 그러나 하천부지의 농경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영농활동이 하천 생태계 오염을 심화시키고 습지의 기능 상실로 이어지는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순천시는 '순천동천 하천 기본계획'에 맞춰 경작지를 습지로 복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습지 복원은 동천의 홍수 예방 및 수질개선뿐만 아니라 순천시 시조이자 천연기념물 제228호인 멸종위기종 흑두루미 등의 서식지의 확대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을 넓히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로써 순천시가 순천만과 도심을 연결하는 생태 복원을 통해 기후위기와 종소

멸에 대응하는 강한 생태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습지복원팀을 신설하여 환경부 습지 토지매입비 총 238억원 중 120억원의 토지매입비를 확보한 바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동천하구의 습지 복원은 연차적으로 내년까지 토지매입 및 복원 사업을 통해 순천만부터 도심방향으로 생태축을 연결할 계획이다"며 "이번 복원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와 생태계보호에 대한 시대적 흐름이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의 원시성을 더욱 강화하여 고품격 생태관광을 통해 생태가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 '소멸위험지역'에서 제외

생태 기반 '우수' 정주 여건 주효
소멸위험지수 0.329... 전국 최저

한국고용노동정보원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지역산업과 고용' 여류호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순천과 광양을 제외한 20개 지자체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순천시는 '소멸위험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것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으로 높아진 도시 경쟁력과 생태·정원을 기반으로 한 우수한 정주 여건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전남의 소멸위험지수는 0.329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평가받는 부산도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해 광역 대도시마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우수한 정주 여건뿐 아니라 지역의 좋은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시는 웹툰·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해 세계 최고 도시들과 경쟁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메카로 거듭나 지방소멸에 대응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대한민국 모든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가 빚어내는 다양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 지역과 연대·연합해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완성을로 지방소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 상사면 주민자치회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낙안면 이화서당에서 서당체험 프로그램인 '상사면 자람학교'를 진행했다. 순천시 제공

상사면 주민자치회, 바른 인성 함양하는 '상사면 자람학교'

인성 교육 통해 가치관 정립
"선인들의 삶과 지혜 배울것"

순천시 상사면 주민자치회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서당체험 프로그램인 상사면 자람학교를 낙안면 이화서당에서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명랑운동회 쾌거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마을 주민과 함께 상사초 학생들이 서당에서 인성과 예절교육을 받으며, 지역 인재

들이 바른 언행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 위주의 학습장이었다.

상사면 자람학교에 참여한 상사초 재학생은 "학교에서 체험할 수 없었던 엄한 훈장 교육에 잠시 불만이 있었지만, 예절교육을 배우면서 같이 온 학생들을 응원해 주고 배려할 수 있었다"며 "하룻밤을 보낸 추억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다"고 참여소감을 밝혔다.

이만호상사면 주민자치회장은 "천자문

읽고 쓰기, 활쏘기, 탁본 족자 만들기, 손수건 염색하기 등 서당체험은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몸소 배울 수 있도록 의제 발굴 및 진행해 주신 서해석 교육분과위원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서당 입소부터 퇴소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함께 해주신 상사면 주민자치회원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공동체가 함께 하는 이번 서당 체험이 상사초 학생들에게 뜻깊은 배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 드림스타트, 전문가 초청 부모교육

순천시 드림스타트는 지난달 27일 드림스타트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가 행복한 만큼 내 아이도 행복하다"라는 주제로 유아교육 전문가인 동강대학교 유계환 교수를 초청해 진행됐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나만의 카드 지갑 만들기' 체험도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부모들의 실제적인 양육 고민과 필요를 반영하여 진행됐다. 특히 아이스 브레이킹, 양육 스트레스 해소 방법 등 부모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전달하여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현재 겪고 있는 자녀와의 의사소통 문제와 상황별 대처 방법을 직접 묻고 답하며 생동감 있게 진행됐다.

한편, 순천시 드림스타트는 12세 이하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자 상담, 치료, 자원 연계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특기·적성 학원 지원, 학습지 지원, 영양제 지원, AI 문해력 향상 교육, 역사 문화탐방, 가족문화 체험 등 연중 제공한다. 순천=배서준 기자

목공체험지도사 자격증반 수강생 모집

순천시는 목공예의 매력을 체험하고 전문 지도사로 성장하고자 하는 시민을 위한 목공체험지도사(3급) 자격증반을 개설했다.

수강신청은 오는 16일까지 받으며, 교육은 20일과 21일에 2일간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실습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어, 목공 기초 수공구 및 전동공구(스크롤쏘, 우드버닝) 사용법 등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이론 및 실습 과정은 총 16시간으로 진행되며,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목공 관련 교육 현장에서

전문교육인으로서 목공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교육장소는 순천시목재문화지원센터(해룡면 여순로 1767-7)이다. 수강신청은 이메일(cjh3650@korea.kr)로 접수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목공예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전문 지도사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안녕, 향동!' 순천시 향동 마을웹툰 인기

지역 역사·문화 등 소개
월 2회 네이버 웹툰 연재

순천시 향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마을웹툰 '안녕, 향동!'(사진)을 네이버 웹툰에 연재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1화 '향동을 만나다'에 이어 2화 '오래된 미래, 순천향교'가 연재되었으며, 매월 둘째·넷째주 금요일 새로운 에피소드를 만나 볼 수 있다.

이 웹툰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작되었으며, 부모님 해외여행 기간에 할머니 덕에 맡겨진 9살 소녀 '서하늘'과 동네 터줏대감인 700살 노모 '천냥이'가 마을

의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다니며 그 가치를 하나씩 알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각 에피소드에는 순천향교, 옥천서원, 팔마비 등 문화유산과 김광필 선생, 박남봉 장군, 최석 부사 등 역사적 인물이 등장하여 구독자들에게 재미뿐만 아니라 유익한 정보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한 구독자는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 몰랐던 이야기들을 웹툰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알 수 있었고, 우리 주변에 있어서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을 웹툰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담아낸 것이 신선하고 흥미롭다"고 말하며 이어지는 연재 내용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동 관계자는 "시가 추진하는 애니메이



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발맞춰 '안녕, 향동 웹툰', '밤에 꼭 만나는 시크릿 벽화', '보랏빛 골목갤러리' 사업 등 다양한 애니메이션 분야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며 "본 웹툰 연재가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